【(주)한진, 컨테이너 위치관리 시스템 구축】

(주)한진은 인천4부두 CY (Container Yard)에 '컨테이너 위치관리 시스템' (CLS: Container Location System)을 자체 구축하여 지난 1월부터 한달여간의 현업 테스트를 거친 후 2월1일 정상 오픈하였다.

기업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자체 Task-Force팀을 운영해 온 한진은 이번 인천4부두에 CLS를 적용한 데 이어 2005년 6월까지 경기지점(오봉CY)과 부산지점(양산CY)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CLS시스템은 크게 ▲Gate 차량 반출입 처리 ▲중장비 작업결과 처리 ▲각종 경영지원 기능(통제 및 현황관리)의 세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관리 항목별 총 12개의 세부기능을 지원한다.

이번 CLS구축으로 고객(선사, 포워드 등)은 (주)한진의 디지털 물류시스템(DLS: Digital Logistics System)에 접속하여 실시간 컨테이너 위치검색 및 작업 진행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장비 운전원이 직접 작업 결과를 운전석 내에 설치된 단말 컴퓨터(M-Station)를 통해 One-Touch 처리함으로써 "컨테이너 상 · 하차 작업 효율성 증대", "Gate 전산화에 의한 차량 대기시간 단축", "실시간 컨테이너 재고관리를 통한 대외 신뢰도 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향후 세관 EDI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 컨테이너 반출입 신고 등 관세청 업무에 대한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주)한익스프레스, 경쟁력 강화 위한 기반 다지기에 주력】

(주)한익스프레스(대표:이상욱)는 사명변경과 사업다각화를 통한 물류부문 운영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최근 물류부문 운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장기 사업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회사의 지적자본인 경영진 관리능력, 업무 프로세스, 인사시스템, 브랜드 가치, 물류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취약점을 집중 보완함으로써,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회사의 지적자본(Intellectual Capital)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브랜드 가치 향상과, 사업다각화의 필요가 대두되었다.

한정희 경영전략실장은 "이번 컨설팅에서는 브랜드 가치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어 조만간 회사의 사명 변경 등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자체 물류브랜드를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며 "향후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사업다각화가 이루어 질 경우를 대비한 사전 준비작업의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또 물류보관기능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부산 영도지역에 4,300평 규모의 물류창고를 매입했다. 이번에 매입한 영도 물류센터의 운영은 보세화물 뿐 아니라 일반 화물까지도 전반적으로 취급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영도 보세창고와 더불어 시설 운영 및 물류 영업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자물류 영업과 물류운영 능력이 우수한 신규 인력도 대폭 충원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올해 예산 18조 887억원】

올해 건설교통부 예산이 정부 전체(일부 회계 134.4조원)의 13.5%인 18조 887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작년도의 16조 3,274억원에 비해 10.8% 증가한 수치이긴 하나 철도청의 공사 전환에 따른 철도청 이관사업을 제외할 경우 2005년 예산규모는 16조 2,882억원으로 작년 예산보다 0.2%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그 동안 투자로 SOC 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된 도로와 지방 공항의 투자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한 데서 기인하였다.

분야별로는 도로가 7조6614억원으로 가장 많고 철도 5조973억원, 수자원개발 1조8438억원, 주택 1조1722억원 등의 순이다. 도로 철도 등 SOC 부문 내에서는 시급성, 투자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통망 확충을 추진하기 위해 교통시설 특별 회계의 교통세 배분비율을 조정하였다.

【한국복합물류, 따뜻한 온정의 손길 펼쳐】

한국복합물류가 지난달 5일 군포 당동에 위치한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인 '성요한의 집'을 방문하여 대형세탁기, 가스렌지 등 생활용품을 전달하였다. 현재 '성요한의 집'은 프랑스 출신 허보록 신부의 자비로 무의탁 청소년을 수용하여 양육, 진학, 교화 등의 보살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년에 비해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주위 관심에서 멀어지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한국복합물류 한 관계자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누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면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복합물류는 모기업인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기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행사 외에도 올 2월 '사회봉사실천단'을 발족하여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병의원 불우환자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TNT코리아, '1만9천원에 전세계 서류배송'】

종합물류회사인 TNT코리아(www.tnt.com/kr)는 편의점 서류 국제특송 서비스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것을 기념, 오는 4월 30일까지 전세계 어디든지 서류를 평소 요금보다 최대 55% 할인된 1만9천원 균일 가격에 보낼 수 있는 '전세계 서류 1만 9천원 배송'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TNT코리아는 서울지역 훼미리마트, LG25, 바이더웨이 등 편의점 50여개 점포에서 서류 국제특송 서비스를 시범실시해 오다 지난 달 17일부터 이 서비스를 서울시내 전역인 1천610개 점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로 서류를 보내고자 하는 고객들은 우체국을 이용하지 않아도 자신의 거주지 주변의 훼미리마트, LG25시, 바이더웨이 등 3개 편의점 체인을 방문하면 된다고 TNT코리아는 전했다.

【현대모비스, 中에 기아차 A/S 부품법인 설립】

현대모비스는 중국에서 기아차 A/S부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장쑤(江蘇)성에 별도 A/S물류법인을 신설했다고 지난 달 10일 공시했다. 현대모비스는 이 법인 설립을 위해 중국측 자동차 부품회사인 강소열달기차배건과 50 대 50 비율로 각각 250만 달러를 출자했다고 덧붙였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아차의 중국내 A/S부품 공급은 중국합작법인인 둥펑위에다기아가 맡아 왔다"면서 "둥펑위에다기아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기아차 A/S부품 공급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 새 법인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SK(주), 싱가포르에 첫 석유물류기지】

SK(주)가 국내 정유사 가운데 처음으로 싱가포르에 대규모 석유물류단지를 확보하는 등 해외 물류망 구축에 본격 나섰다.

SK(주)는 지난 달 11일 싱가포르의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주룽섬(Jurong Island)에 건설될 예정인 대규모 석유물류기지의 지분 15%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물류기지에는 530만배럴(84만㎥)의 석유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와 입출하 설비인 부두가 들어서며, 올 상반기 착공돼 내년 7월부터 상업 운영된다.

SK(주)는 모두 2억달러가 투입되는 사업에 싱가포르 현지법인인 SKEA(SK Energy Asia Pte Ltd)를 통해 15% 지분을 투자하게 된다.

나머지는 두바이 국영석유회사인 ENOC 산하 호라이즌 터미널(HTL)이 52%, 쿠웨이트의 전문 석유트레이딩 회사인 인디펜던트 석유(IPG)가 15%, 세계적인 전문 석유트레이딩 회사인 비톨(Vitol)의 자회사인 말탱크(Martank B.V.)가 10%, 아프리카 지부티의 투자전문회사인 보레(Boreh)가 8%의 지분을 갖는다.

SK(주)는 싱가포르 석유물류기지를 통해 아시아 석유거래의 중심인 싱가포르와 동남아지역에 대한 수출 및 트레이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중국에도 물류기지를 확보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를 잇는 석유 물류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SK(주)는 "석유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아 · 태지역 석유 트레이딩 분야 메이저 플레이어'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통업계, 점포 구조조정】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유통업계에 '점포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할인점 업계의 경우 업체간 과잉 출점 경쟁으로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데다 영업 부진으로 문을 닫는 점포까지 생겨나고 있다.

최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영업이 부진한 서대구점을 물류센터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대구점은 지난 1월 30일 영업을 종료하고 문을 닫았다. 롯데마트가 점포를 폐점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03년 문을 닫은 부산 해운대점은 현재 직원 교육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롯데마트는 이와 함께 부산 사하점과 천안점 등 영업부진 점포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대도시 도심과 주거 밀집지역, 지방 중소 도시에 영업면적 1천500평 이하의 '지역밀착형' 점포(Neighborhood Mart)를 열어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할인점 킴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뉴코아는 지난해 킴스클럽 평촌점을 매각했으며 강남점, 분당 야탑점, 순천점 등 핵심 점포 3곳만 할인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계 할인점 업체인 까르푸는 앞서 지난 2003년 영업이 부진한 부산 사상점을 폐점했으며, 신세계 이마트가 현재 사상점을 임대 운영하고 있다. 인수 · 합병(M&A) 움직임도 활발하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부산 · 경남 지역 할인점인 아람마트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대백화점과 까르푸는 상품권 공동 사용 등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 · 광양항, 외국인투자 유치 종합계획 마련】

해양수산부는 지난 달 14일 경제자유구역청과 지방자치단체, 코트라(KOTRA) 등 관련기관과 부산 · 광양항 투자유치 추진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 체계적인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기관별 활동을 종합 조정한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이번 달 말까지 수립하고 자유무역지역은 해양부와 부산항만공사 등이,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청, 산업단지 등은 관할지자체가 주관해 유치활동을 펴기로 했다.

또 투자유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별 추진성과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관련기관의 역량이 집중돼 부산항과 광양항에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항, 물류혁신 선포식 개최】

'인천항 물류혁신을 위한 민.관 합동선언' 선포식이 지난 달 11일 인천본부세관 강당에서 열렸다. 인천시, 인천세관, 인천해양청 등 인천지역 10개 행정기관 기관장과 18개 항만유관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선포식에서는 인천항 물류 혁신을 위한 6개 실천 원칙이 발표됐다.

6개 원칙은 ▲화물 즉시 처리(Promptness) ▲책임있는 일처리(Responsibility) ▲일괄처리(One-stop service) ▲기동성(Mobility) ▲안전한 환경 구축(Safety) ▲자동화(e-procedure) 등 각 원칙의 영어 앞 글자를 따 만든 'PROMISE(약속)' 원칙으로 인천항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는 뜻을 담았다.

세관은 이날 선언에 참여한 단체들로부터 자문을 얻어 '인천항 물류 혁신 실천실무협의회'를 편성, 협의회 산하에 물류지체신고센터(☎ 032-452-3226)를 둬 물류처리와 관련된 불편, 애로사항을 접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中 다롄톈진, 인천항 대표부 설치】

인천항을 알리고 중국 항만의 최신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인천항 대표부가 오는 3월 중국 다롄(大連)과 톈진(天津)에 설치된다.

인천시는 중국 지역의 물류동향을 수집해 대 중국 물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인천항 홍보활동(Port Sales)의 전초기지로 이용하기 위해 다롄과 톈진에 인천항 대표부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항 대표부는 별도의 사무실 없이 영어 구사력이 뛰어난 현지 중국인 해운물류업계 전문가에 의해 운영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두 지역 각각 월 2천500달러의 운영비로 중국인 물류전문가를 고용, 인천항 홍보활동을 맡기는 한편 중국 주요항만의 동향과 경영전략 등을 보고 받을 계획이다.

국내에 진출한 해외 항만 대표부는 미국 8곳, 일본 3곳, 독일 2곳 등 모두 17곳에 이르지만 국내 항만의 해외 대표부는 중국 칭다오(青島)에 설치된 광양항 대표부가 유일하다.

[인물동정]

》연임

이 영 해 회장

-(사)한국SCM학회

》승진

신 유 균 부회장

-(사)한국한국물류협회